

이승현의
뇌과학 칼럼



“우리시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 뇌 정보는 도덕성과 올바른 역사의식, 비전이다. 또 평화철학과 통일철학을 가져야 한다.”

사 람을 움직이는 것은 뇌이며, 뇌의 생명은 정보다. 뇌는 정보로써 일하고 뇌의 가치는 정보로써 평가된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뇌 속에 고급 정보를 많이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뇌이고 뇌 속의 정보이다.

뇌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지도자일수록 뇌 안의 정보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 조직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는 31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4회 지방선거이다. 어떠한 뇌를 가진 단체장·지방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뇌 속에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는 다섯 가지가 있다.

우리 시대 지도자가 갖추어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직, 성실, 책임감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성이다. 지도자라면 이 세 가지를 당연히 갖추어야 하며 이것을 갖

추었을 때 비로소 공심(公心)을 가질 수 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이 보여준 마음이다. 공심을 가질 때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

참다운 지도자라면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이 없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만인 앞에 나서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다.

도덕성 있어야 公心 가질 수 있어

또한, 지도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이다. 주체적인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국민에게 힘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없다. 지도자의 역사의식이란 도도히 흐르는 민족사와 세계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다. 또한 자신이 주진하는 모든 일들이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바르게 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다.

우리 시대 지도자의 뇌에는 또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민족화해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철학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가 이면서 남한 내부에서도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나뉘어 양극화가 심각하며, 민부격차 등으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또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각 지역마다 적지 않게 살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 절실했을 것이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지역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전이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나서는가’ 물으면 지도자는 자신 있게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공약(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 운동이 뿌리내려 헛된 공약이 사라지길 바란다. 좋은 비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다 쓸어 놓도록 자극을 준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도 ‘잘 살아보자’는 비전이 있었고 거기에 온 국민이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지역민을 감동시키고 모든 정열을 불태울 만한 비전을 지역의 리더들이 제시해야 한다.

주체적 역사의식 바탕 비전 제시를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일철학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 시·도지사,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자 사명이지만, 서둘러서는 안 되며 제도의 통합이나 단일화보다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동포가 누릴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철천만 계례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신의 통일, 흥미이라는 민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정보를 뇌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일꾼’이다.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정보를 뇌 속에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가, 남은 기간 꿈꿔하게 살펴보자. 준비된 일꾼을 뽑는 뜻은 이제 국민에게 있다.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

KT 안방전화 전쟁

LGT

유선 수준 가격 파괴…LGT ‘기분존’ 서비스

KTF “기능·요금 왜곡” 통신위에 시정 요구

KT와 LG텔레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치열하다. 미묘한 신경전에서 통신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영역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 사건의 발단은 =LG가 이달 ‘기분 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부터다.

이 서비스는 전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블루투스(Blue tooth·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담배갑보다 작은 플러그 형태의 ‘기분존 알리미(1만9천800원)’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반경 30m(48평)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유선전화 수준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다. 3분당 39원의 요금으로 시내·외 구분없이 통화할 수 있는셈이다.

즉 기분존 서비스로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유선전화에 걸어 1시간 통화해도 780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동전화간 통화료는 10초당 18-19원을 내야 한다.

◇ KT가 불편한 이유=LGT가 내놓은 광고부터 자극적이다. ‘가출한 집전화’, ‘집전화 수난시대’광고를 선보이는가 하면 ‘전국 집전화 일동’ 명의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냈다.

“SK텔레콤, KTF는 가만있는데 왜 LG텔레콤만 저희(집전화)를 이토록 못살게 구는 겁니까, 기분존 서비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 유무선전화 상호접속률 (단위: 원/분)

유선→무선

	2002	2003	2004	2005
SKT	46	41	32	31
KTF	53	48	48	47
LGT	59	53	59	55

무선→유선

	2002	2003	2004	2005
KT, 하나로	16.2	14.9	17.8	18.1



LG 텔레콤 ‘가출한 집전화’ 광고

으로 보고 있다.

통신위에 신고한 것도 “LGT가 광고를 통해 유선전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어 시정하기 위한 조치” 일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이동전화의 활성화, 인터넷 전화 등으로 유선전화 시장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자칫 유선전화 매출 감소세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LGT 외에 이동통신업계 1위 회사인 SK텔

레콤도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SKT가 비슷한 사업을

준비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상관없는 ‘접속료’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대목,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건 이용자측 사업자가 받는 측 업자에게 접속료를 내게 되는데 가입자가 늘게 되면 접속료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접속료의 경우 KT는 분당 18원, SKT는 31원, KTF는 7원, LGT는 55원을 받고 있다.

예컨대 기분존을 통해 유선전화를 걸면 LG텔레콤이 분당 접속료 18원을 KT에 내는 반면 유선전화로 기분존에 전화로 걸면 KT가 LGT에 분당 55원을 내야 하는 것.

선발 업체와 불어야 존재 가치를 알리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LGT의 흥보전략에 KT가 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006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의 과학

가죽조각 14개로 줄여 구형에 접근
공기저항 적어 정확도·컨트롤 향상

2006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

는 마모 및 변형 방지가 필수라는 것. 강철판에 2천번 때리는 실험을 거친 것도 이때문이다. 이외 방수성도 탁월하다. 공이 물에 젖게 되면 무거워지고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반동력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공을 넣고 25차례 회전시킨 뒤 무게를 측정, 수분 흡수율·무게 증가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디다스는 이번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에 ▲로보틱 렉(The robotic leg)을 이용한 정확도 실험 ▲원주(circumference) 테스트 ▲영구적 원형(roundness)유지 ▲수분 흡수력 ▲무게·모양·사이즈 유지 등을 거쳤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34평형

2년 전 분양기로 내 집 마련하세요!!

NAMHAI KWANGJU APARTMENT

여행! 이집마다 두드러운 산책하나로 한 걸음

오네프빌

57.56% 할인

225-0070 NAMHAI KWANGJU APARTMENT